아! 못다 핀 청춘의 꽃…청소년 극단 선택 늘어

광주·전남 10대 4년간 85명 안타까운 사망…정신응급 상황 2배 급증
청소년 마음 건강 '빨간불'…정신건강검진 확대 등 적극적 대책 시급

광주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극단선택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 정신응급 상황이 최근 5년새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전남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느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순천시 모 아파트에서 A(1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29층 높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유서 등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아파트 내 CCTV를 통해 A군이 혼자 옥상으로 걸어 올라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지난 3일 밤 10시 50분께에는 진도군 의신면 연주리 인근 야산에서 B(19)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이 남긴 유서에는 자신이 기숙형 특수학교를 다니며 다른 장애 학생의 배변 처리를 돕는 등 부당한 일을 강요당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에는 광주시 서구 유촌동 아파트에서 중학생 C(14)군이 친구와 다툼 끝에 아파트 11층 공용부 계단에 있는 창문을 넘어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청소년들의 위기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야간·공휴일 응급 상황에서만 이뤄지는 '청소년 정신응급 상황' 출동 건수는 지난 2019년 47건에서 2023년 120건으로 2.5배 넘게 증가했다.

또한 극단적 선택 시도 등으로 강제 입원된 사례도 2019년 13건에서 2023년 62건으로 5배 급증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9년 346명, 2020년 326명, 2021년 380명, 2022년 358명, 2023년(잠정) 375명 등이다. 이 중 10대 이하(만 19세 이하) 사망자 수는 2019년 7명, 2020년 11명, 2021년 9명, 2022년 14명으로 증가세다.

전남의 경우 2019년 473명, 2020년 526명, 2021년 554명, 2022년 485명, 2023년(잠정) 506명이 고의적 자해로 숨졌으며, 이 중 10대 이하 사망자는 2019년 10명, 2020년 9명, 2021년 13명, 2022년 12명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청소년들이 외부 요인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형제·자매 없는 1인 자녀 가구가 늘면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양보와 좌절 등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사회에 나오고,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3년 동안이나 '비대면 사회'를 겪으면서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이 과거에 비해 좌절이나 충동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졌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청소년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도 부모의 반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잦다고 한다. 대다수 학부모가 학교 출석 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이유로 입원 치료를 꺼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업 지장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늘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청소년 정신건강 검진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도연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좌절 등을 극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입원 치료 시 출석일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병원학교'를 늘리는 등 인프라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조선대병원이 올해 시교육청과 협업해 '병원학교'를 새로 열기로 했으나 전공의 파업으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 극단선택의 원인은 코로나19 등으로 또래 간의 연대가 위축되고 사회적 스트레스와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극단 선택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는 '학생 정신건강검진'의 기간을 단축하고 횟수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남중생에 성적 메시지 보낸 20대 여대생 벌금형 선고

15세 남자 중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20대 여대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A(여·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3시 50분께 B(15)군에게 SNS대화방에서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3일 뒤인 28일까지 총 8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군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도구로 이용했고 성적착취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서도 삼청교육대 피해자 손배소 진행

가혹행위 당한 80대, 국가 상대 재판 광주지법서 열려

광주에서도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26일 광주지법 별관 105호 법정에서 최윤중 판사 심리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초를 당한 A(80)씨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한 사건이다.

A씨는 1980년 8월께 전두환 신군부에 반대하며 시민군으로 참여했다는 주민의 신고로 군경에 붙잡혔다.

31사단에 한달 가까이 억류됐던 그는 어느 날 군용 트럭에 실려 강원도 산골로 이동하게 됐다. 그는 산골의 군용 천막에서 생활하며 도로개설 노역에 동원됐고, 밤에는 기합을 받는 생활을 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삼청교육대'였다. 삼청교육대는 신군부가 전두환·신군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불법 감금하고 갖은 가혹행위를 저질렀던 곳이다.

그는 "60여명을 관리하는 소대장을 역할을 맡게 됐지만, 동향인 광주 지역민들을 폭행하는 대신 밤마다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신군부는 9월달이지만 얼음장이었던 강원도 산골의 계곡물에 A씨를 집어 넣고 물에서 나오면 일명 '몽둥이 찜질'을 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6개월 간의 지옥같은 생활을 하고 광주에 돌아왔지만 회사에서 퇴직금 한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계속된 경찰의 감시에 불순분자로 찍혀 새 직장을 구하지도 못했다.

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규명 결정을 받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7월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6월 1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

'아픔의 현장' 막바지 철거 작업

26일 막바지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 앞으로 시내버스가 지나가고 있다. 이 곳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9일 철거 중이던 건축물이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재개발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숨진 채 발견

광주지역 한 재개발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장흥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0분께 장흥군 관산읍 인근에서 40대 여성 A씨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가족이 "A씨와 연락이 안되는데 자살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접속기록을 통해 최종 위치를 확인하고 수색에 나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광주시 북구 한 재개발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합은 추가 분담금 문제로 입주가 미뤄지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다. 경찰은 "사업이 어려워져 힘들어 했었다"는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

중학교 후배 서로 폭행하게 하고 영상 촬영한 5명 입건

중학교 후배들을 서로 폭행하게 하고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으로 유포한 중·고등학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광경찰은 26일 중학교 3학년 A·B양과 C·D군, 고등학생 2학년생 E군 등 5명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밤 9시 30분부터 11시께 영광군 영광읍의 인적 드문 주택가 골목에서 1시간 30분여에 걸쳐 중학교 2학년 여자 후배 2명을 서로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이 서로 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지역 포털 커뮤니티 등지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영상에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직접 주먹질을 하거나 욕설, 조롱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주범인 A양과 C군은 후배 2명이 "학교 안팎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버릇없다"는 이유로 기강을 잡겠다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온라인 유포된 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했으며, 피해 학생들은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 · 고객 · 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1%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1일이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9%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1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